



죽비와 목탁

이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적 삶 살면 행복도 따라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라고 그 삶을 위해 성공을 쫓을 수 밖에 없다. 흔히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직장, 인맥과 배경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계 최고의 지식들이 모이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삶은 보통 사람들 보다는 순탄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과연 그들은 행복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미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최근 1937년부터 조사해온 하버드생들의 인생사태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들의 출발은 순탄했으나 50세가 지나면 무렵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마약과 술에 빠져 단명한 이도 적지 않았다.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국 사랑"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어 교수는 행복의 필수 요소를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송 △적당한 체중 7가지로 추렸다. 이 생애연구를 통해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풍요로움(小欲知足), 인간관계(인연화합), 사랑(자비)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2009년 2월 <다

입>지에서도 소개했다. 미 미시간대 사회학자이자 보건전문가인 닐 크라우스는 1997년 교회 신자 15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연구를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도움을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흔히들 불교적 삶이라 하면 청빈하고 무소유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적 삶을 추구할 때 그 성공과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정신적 풍요는 조계사 시민선방,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공생실천과정 등 여러 사찰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의 월례 행사인 '참여불교 리더스포럼'과 불교 인재개발원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불교와 사회발전을 교육시키는 단체에서 경험할 수 있다. 불자들은 인생의 성공이 수행과 자기계발의 정도에 있음을 알아야 하며 불교계는 불자들에게 연속된 경쟁의 삶 속에서 행복과 성공을 거머쥐는 열쇠를 더욱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계종 '법계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법제제도 정착을 위한 '법계관련 종헌 및 종법령 개정안'을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법 상의 법제법수 자격연한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 종헌 중법상 승랍·연령·법계를 자격기준으로 적용하는 각급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조항을 법계·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출가자가 3급 중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승랍 10년 이상 3급 고시 합격에서 승랍 5년 3급 고시 합격한 자로 완화된다. 또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기존의 승랍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2급 승가고시는 승랍 20년 이상에서 승랍 10년 이상으로 낮춰진다. (02)2011-1710 조동섭 기자

한·일불교교류 30년 '화합비' 세워

제30차 한일불교대회 '참회로 시작한 진정성이 대화합의 시작'



5월 13일 여주 신륵사에서 열린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한일 불교계 대표자들은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제막했다.

일본 남인들에게 사해당한 조선 마지막 국모 명성황후의 고향 여주에 일본 측의 참회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지는 등 여느 해보다 뜻 깊은 한일불교대회가 원만히 회향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지관)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5월 12~14일 여주 신륵사에서 제30차 한일 불교대회를 개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2일 서울 워커히호텔 환영만찬으로 시작해 일본 측 참가자 120여 명을 포함해 한일 양국의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본 불교계 대표자들은 13일 신륵사(주지 세영)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세웠다.

일본 승려들은 신륵사에 세워진 기원비에 "불행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특히 근세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인에게 대대(多大)한 고통을 끼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반성과

참회의 염(念)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새겼다.

기원비는 높이 3m에 폭 70cm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人類和合共生祈願碑(인류화합공생기원비)'라는 비명을 새기고, 뒷면에 일한불교교류협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의 대장부적인 결단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1945년 이후 한일 양국 간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양국 민족간 양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60여 년동안 정치적

진정성만이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를 녹여버릴 수 있는 참 교류이며 대화합의 시작"이라며 "일본 불교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침략에 대해 참회(懺悔)의 마음을 일관되게 공표해온 미야바야시 쇼겐 회장 스님의 대장부적인 결단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1945년 이후 한일 양국 간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양국 민족간 양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60여 년동안 정치적



우승 스님 신륵사 주지 임명장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월 15일 설악산 신륵사 주지에 당선된 우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본말사 대중스님들의 화합에 힘써주시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우승 스님은 7일 신륵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신임 주지로 선출됐다. 조동섭 기자

'학인 경전 암송·설법대회' 개최

전국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각 강원외의 명예를 건 경전 암송과 설법대회가 열린다.

(회장 해평)는 5월 21~22일 중앙승가대 학내에서 학인 교류와 화합을 위한 '전국 학인 경전 암송·설법대회'를 개최한다.

남북불교계 반출문화재 환수 협의

문화재환수위 5월 19~23일 평양 방문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단체의 방북이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문화재환수위원회(위원장 백창기, 이하 환수위)가 해외반출문화재 반환 협의차 평양 방문을 예정해 눈길을 끈다.

환수위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초청으로 해외반출문화재 반환운동 경과 공유 및 향후 과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5월 19~23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15

일 밝혔다.

방북단은 문화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과 이상근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부두원 서울시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됐다.

환수위는 방북 기간 동안 북측과 함께 북관대첩비를 참배하고 해외반출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발표 및 성명 채택, 민족문화재반환 남북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문 스님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문화재환수 협의를 위해 남북불교계가 만나 협의한다는 점이 이번 방북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북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수위는 2008년 8월 방북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합의에 따른 문화재 반환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조동섭 기자

'불교 임종의례...'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은 5월 21일 오후 2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제32차 포교정책연찬회를 열고 <불교 임종의례와 상례 지침서> 편찬의 방향을 논의한다.

종책연찬회는 유재철 교수(동국대 대학원 장례비즈니스학과)의 사회로 강동주 겸임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의) 주제발표 '불교 임종의례의 정의와 내용'을 통해 △임종의례의 정의 △표준 임종의례 제시 △불교 임종의례 지침서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한다.

순남숙 원장(한국생활문화연구원)은 △우리나라 불교 전통상례 △우리나라 유교식 전통상례 △의례준칙에서의 상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불교상례 등 '불교 상례의 의미와 절차'를 주제발표한다.

이상연 기자

東大 25일 이사회

새 이사장 정련 스님 유력

실행이 선고된 영배 스님이 이사장직 사퇴를 천명해, 표류하던 동국대 이사회가 새 국면을 맞았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5월 25일 오후 3시 제244차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장 선출권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사장 영배 스님은 최근 몇몇 이사회를 만나 이사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배 스님이 이사장직까지 사퇴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차기 이사장으로는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상임 이사 교체 여부 등 이사회 내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최종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제244차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출권 외에도 2008학년도 결산보고와 불교학술원 원장 임용 등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사장 영배 스님은 3월 13일 제243차 이사회에서 '종도와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사장 사퇴를 거부했었다. 조동섭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 탄신 96주년 봉축 및 원적 13주기 추모대제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봉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제정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과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창종주 일봉 서경보존자님의 탄신96주년을 봉축하며, 원적 13주기를 추모하는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봉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일봉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3년 5월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6월 1일 (음 5. 9) 월요일 오전 10시
-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봉황산 일봉사(一鵬寺)
- ◆ 연락 및 문의처 1) 서울총무원 ☎ 02)998-8161~2 / 전승 02)998-8384
- 2) 의령일봉사 ☎ 055)572-7777
- 3) 문 도 회 ☎ 02)777-0901
- 4) 각교구중무원 및 일봉관계단체
- 홈페이지 http://ilbung.org

- ◆ 증 명 : 봉해, 무찰, 인왕, 지산, 해룡, 해철
- ◆ 고 문 : 금봉, 명종, 청송, 원각, 송은, 수암, 지공, 해천, 김원각, 법은, 지공, 동봉, 정암, 법광, 법영, 혜지, 덕산, 천강, 청원, 동원, 삼중, 의천, 의문, 보광, 법정, 룡담, 용화, 천법, 청하, 율호, 탄공, 정각, 도철, 정승, 법륜, 무공, 화란, 의범, 찰스메르시에(미국)
- ◆ 대 회 장 : 도 기(일봉문도회장)
- ◆ 봉행위원장 : 화 엄(총무원장)
- ◆ 봉행부위원장 : 법성, 삼주
- ◆ 추진위원장 : 경원
- ◆ 기획위원장 : 용암
- ◆ 지도위원 : 일명, 경담, 해광, 해원
- ◆ 경호위원장 : 정철
- ◆ 각교구동원위원장 : 보해, 동청, 도해, 광은, 보광, 해동, 진경, 용주, 지운, 해성, 석성, 경운
- ◆ 분과위원장 : 총무분과-용운 / 의전분과-서해성 / 재무분과-해일 / 봉사분과-지언
- ◆ 분과부위원장 : 의전분과-진윤 / 홍보분과-자해
- ◆ 집행위원장 : 해 운(일봉사 주지)
- ◆ 집행부위원장 : 서병열
- ◆ 추진부위원장 : 최해수, 정금조, 배맹자
- ◆ 지도위원 : 도안
- ◆ 집행위원 : 석성

일봉존자 원적 13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